

논술고사 문제지 (오전)

(인문계열) : 120분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자
수험번호		성명	

■ 일반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 배점은 [문항 1]이 60점, [문항 2]가 40점입니다.
2. 답안을 구상할 때 문제지의 여백이나 문제지 내의 연습장을 사용하십시오.
3. 답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 사용하십시오(연필, 샤프 사용 가능, 사인펜 불가).
4. 답안을 정정할 때 원고지 사용법에 따르십시오(수정 테이프, 지우개 사용 가능, 수정액 불가).
5. 답안은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란에 작성하고, 답란 밖에는 작성하지 마시오.

※ 답안지는 절대 교체할 수 없습니다.

■ 답안 작성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오.
2. 제시된 분량을 지키시오.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마시오.
4. 논술문의 형식에서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쓰시오.
5. 수험번호, 성명 등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란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드러내지 마시오.



논술고사(인문계열)

■ 문항 1 [60점]

[논제] 인하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용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하려고 한다. <다음>의 두 방침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하나만 택해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1,000±100자, 60점)

— < 다 음 > —

학생 전용 도서관

도서관을 인하대학교 학생 전용으로 운영한다.

시민 개방형 도서관

도서관을 시민들에게도 개방한다.

— < 조 건 > —

1. 서론과 결론은 쓰지 말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할 것.
2. 둘 중에 하나만 택하여 자신의 선택을 첫 문장에서 밝히고, 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논거 두 가지를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하되, 두 개 이상의 제시문을 활용할 것.
3.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쓰고 이를 재반박할 것. 재반박은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아도 됨.
4.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 제시문 >

(가) 한 사회의 발전은 정치적 안정, 경제적 풍요, 기술력 향상과 같은 기준만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사회 구성원들이 삶의 자율성과 각자의 고유한 개성과 미적 취향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정과 교육적 지원뿐 아니라 삶의 가치를 높여줄 지적·문화적 환경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양한 지적 자극과 수준 높은 문화적 가치를 향유함으로써 삶은 풍요롭게 되고 사회는 발전하게 된다. 이런 까닭에 국가는 뛰어난 창의성과 지성을 갖춘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자 문화적 자산에 대한 생산과 투자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다.

문화적 자산이란 개인과 사회의 질적 수준을 결정짓는 유·무형의 다양한 예술적·지적 가치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문화예술뿐 아니라 각 시대마다 개인들이 창조해낸 다양한 문화예술품도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얼마나 훌륭한 수준의 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수준이 결정되기에 국가는 문화적 자산의 투자에 적극 나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국가나 기업만이 문화적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나 기업이 새로운 지적·문화적 생산물을 창조하기 위해 투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회 구성원 전체가 각자 자신의 노력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적 자산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에 주목할 때, 문화 생산자 및 수용자의 권리를 각각 강조하는 개념들인 '카피라이트(copyright)' 및 '카피레프트(copyleft)'의 기능과 역할이 한층 중요해진다.

먼저 '카피라이트'는 창작자의 재산권과 표현권을 중요시하는 입장이다. 만약 이것들을 포함하는 지적 재산권을 충실히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창조적 노력과 성과는 헛수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그들의 생산 능력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여러 가지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먼저, 저작자에게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창작 활동의 동기와 활력이 약화된다. 그 결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품질의 저작물 생산이 감소된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각종 교재들에 대한 대학가의 무단 복사 및 제본 행위를 들 수 있다. 카피라이트를 무시한 학생들의 무임승차는 저작자와 출판사의 권리 훼손과 금전적 손해로 이어진다. 학기 초에 벌어지는 대학가 복사집에 대한 경찰 당국의 불시 점검이 저작권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적 법적 조치임이 이로써 분명해진다. 이러한 카피라이트 보호 정책은 저작자의 잠재된 능력과 저작물에 대한 생산력을 더욱 끌어올리는 선순환의 효과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카피라이트는 그것의 독점적 권리와 광범위한 영향력 때문에 종종 다음과 같은 반발과 저항에 부딪힌다. 대중과 공유되지 않는 폐쇄적인 카피라이트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지식과 정보 격차를 크게 벌려 불평등 사회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의 지식과 정보는 이미 형성된 그것들을 바탕으로 생겨나거나 발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체의 온전한 소유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공동체나 대중의 공동 자산으로 돌려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저작권 공유 운동은 특정인의 지식 생산물에 대한 독점이나 사용 제한을 거부하며, 개방된 권리를 새로운 지식의 생성과 확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카피레프트' 운동으로 진화한다.

카피레프트는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편의와 권익을 함께 끌어올리자는 주장의 산물이다. 그것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본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최근 지식 검색 활동에서 인기가 높은 '위키피디아'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직접 올리거나 이미 등록된 것들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온라인 백과사전이다. 이런 성질 때문에 위키피디아는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지식과 정보의 협동적인 생산 또는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지성의 한 모델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위키피디아는 사이버 공간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자유로운 협력 속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문서를 훼손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위키피디아는 새로 구성하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과 신뢰할 만한 출처의 확보, 검증 가능한 저작물이나 지표의 제시 등을 집필 원칙으로 강조한다.

이상의 카피라이트 및 카피레프트에 대한 설명은, 생산자의 저작권을 강조하든 수용자의 향유권을 높이 사든, 저작자가 들인 시간과 노력, 그 결과물에 대한 따스한 존중과 예의바른 활용을 기본 조건으로 삼아야

함을 잘 알려준다. 이런 태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지적 생산물도 더욱 창조적이며 풍요로운 정보 교류의 장(場)으로 발전하거나 거듭날 수 없을 것이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경제』 활용

(나) 공중화장실의 휴지걸이에는 휴지가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 공중화장실의 사용자 수를 예상하여 휴지를 주기적으로 채워 넣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 마찬가지로, 큰 직장에서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신고나 예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간의 기물은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의 기물보다 수명이 짧다. 여러 사람이 쓰는 곳이니 당연히 그렇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용의 빈도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차이는 일반적으로 유지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현상은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유물, 특히 자기 혼자 소유한 것을 대할 때와 공유물, 즉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소유한 것을 대할 때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히 말하자면, 우리는 자기 혼자 소유한 것에 한층 강한 애정을 가지는 반면,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약한 애정을 가진다. 그 결과, '공유지'는 '사유지'에 비하여 황폐해지기 쉽다. 문제의 재화에 대한 소유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공유지의 비극을 예방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고도 하지만, 공공시설 같은 경우엔 그런 해법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운동하는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덕분에 많은 사람이 쾌적한 여가활동의 환경을 얻었다. 그러나 그 대신 학교는 시설 개방 전보다 많은 시간과 인력을 들여서 쓰레기를 치우고 훼손된 시설을 보수해야 한다. 이런 일은 그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특별히 무지하거나 양식 없는 사람들이어서 벌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심리법칙이 작용하고 있고, 그 힘을 거스르기는 어렵다.

흥미로운 것은, 위에 언급한 직장 내 공간의 경우에 특정 개인이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특정 그룹의 사람들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공간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에 해당하는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특정 부서에 속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회의실의 집기는 대개 개인 공간의 집기 못지않게 잘 관리되고 보존된다. 앞서 공유지의 비극으로 귀결된 상황은 그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인 데 비해, 특정 부서의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사용자 그룹 내의 어떤 공동체 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재화나 서비스는 유한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희소성을 띤다. 희소성이란, 사람들의 욕구는 무한한 데 비해 그 욕구를 채워 줄 재화나 서비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천연 자원도, 인적 자원도, 특정 조건을 갖춘 공간도, 일정 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서비스도 다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족한 자원을 누구에게 공급해주어야 할까? 여러 가지 원칙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그 자원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한 사람에게 그것을 공급한다는 원칙이다. 최근 승용차를 구매한 친구보다 나에게 승용차가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도, 또 친구가 구매한 승용차가 마침 내가 아주 좋아하는 모델이라고 해도, 그 승용차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값을 지불한 친구다.

고등학교 『경제』 활용

(다) 최근 지역자치단체의 도서관들 가운데 시민강좌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다. 어떤 도서관은 독후감 발표회나 강연 모임뿐만 아니라 미술 전시회나 사진전, 음악회 같은 문화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이들 프로그램의 도입은 무엇보다 대중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적인 조치이다. 하지만 도서관의 기능 확장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이용자나 방문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인기 편승의 방안 정도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식 제공과 정보 활용에 도움을 제공하는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도서관은 단순히 여러 시대와 지역에서 생산된 책들을 한데 모아둔 책 창고가 아니다. 도서관은 책을 읽는

사람들, 읽을 책을 찾아 서성거리는 사람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낯선 종류의 책들을 뒤적거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또한 이들이 모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하고 소통을 나눌 가능성이 열린 상호 대화의 공간이기도 하다. 도서관에서 대중들은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읽는 책을 힐끔 엿본 후 새로운 책과 알지 못했던 저자에 대해, 또 새로운 주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나아가 우연한 기회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전문 분야나 문화 트렌드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 이를 계기로 도서관 이용자들은 새로 만난 사람들과 서로의 책에 대해, 그 책들을 읽은 느낌에 대해, 그리고 책에서 읽은 이야기나 문제에 관한 서로의 생각을 듣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자아와 타자의 친밀성을 높이고 세계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더욱 드높이게 된다.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 정통하지는 못하다. 또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 사이의 이런저런 가벼운 교류는 미처 경험하지 못한 지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곤 한다. 말하자면 도서관은 다양한 생각과 정서들이 넘나들며 교류하는 열린 공간이며, 이를 통해 개인과 세계의 변화와 혁신이 잉태되고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는 생산의 장(場)이다. 예컨대 그곳에서는 서로 다른 관심과 흥미를 지닌 사람들이 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만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이한 언어권이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만나 친선을 다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와 같은 도서관의 활기찬 모습은 그곳을 성적을 높이기 위한 공부방 정도로 여길 따름인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가 매우 넓고 편협한 것임을 잘 보여준다.

지식과 정보의 획득을 넘어 문화와 생활 공동체의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한 도서관의 현황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대중들의 방문과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 시설과 장치, 그리고 문화적·실용적인 프로그램을 더욱 풍부하게 갖춰야 한다. 이를테면 방문객들이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아늑한 서가도 필요하고,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읽은 책들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토론방도 필요하다. 만일 혼자만의 공부를 위한 장소만 있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동의 공간이 전혀 없는 도서관이라면, 지금과 같은 글로벌 사회에서는 그 가치와 효용성이 매우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다양성과 대중성을 폭넓게 갖춘 열린 도서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문화적 진보와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의 도서관은 비유컨대 개인의 '독백' 못지않게 대중들의 '대화'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활용

(라) 우리는 특정한 영역의 지식을 어느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영역의 지식이 필요한 문제 상황을 만나면, 일반 시민들의 의견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존중한다. 우리의 이런 관행은 지식이 중요한 가치의 원천이자 그것을 현실화하는 강력한 추동력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미 400년 전에 베이컨이 설파한 것처럼 지식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힘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활동하는 국가나 지역의 역사와 정치적 상황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갖춘 외교관과 그렇지 못한 외교관을 생각해 보라. 후자는 전자에 비하여 외교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지식은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이런 까닭에 오늘날 지식은 가치를 지닌 재화의 일종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기꺼이 치른다. 때로는 특수한 상황에 필요한 고급 지식을 취득하기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중등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일 역시 이처럼 가치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다. 대학생으로 사는 것은 적잖은 돈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지만, 대학이 오늘의 사회에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핵심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기꺼이 그런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문 지식의 습득과 지식을 활용하는 연습에 힘쓴다. 대학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대표적인 경로는 교수들의 강의지만, 그 경로는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학생들은 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자 효과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나아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는 기회를 갖는다. 현명한 학생이라면 대학의 다양한 자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식 습득과 자기 개발에 온힘을 기울일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자세인 동시에, 학생의 고유한 권리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할 때, 대학이 강의실뿐만 아니라 실험실, 휴게실, 학생식당 등 대학의 제반 시설에 상당한 재원을 투자하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학은 고등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사회에 공급하는 자이고, 그 공급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그 대학의 학생들이다. 말하자면 그 학생들이 대학의 고객이다. 그리고 대학은 이런 고객들의 이익을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고려하고 추구할 의무를 지닌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활용

(마) 평등은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다. 민주사회의 모든 시민이 향유하는 기본권인 평등권은 인종, 성별, 종교, 사회 경제적 조건 등에 의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오늘날 사회에서 평등권의 핵심 요소는 정보 접근성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 접근성의 평등이란, 정보를 얻고 활용할 기회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시민이 이런 평등을 향유할 권리를 지녔다는 생각이 정보 접근권 개념의 토대가 되었다.

모든 시민이 평등한 정보 접근권을 지녀야 한다는 견해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에서 소외된 계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 즉 정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낳았다. 그리고 평등한 정보 접근권에 대한 관심은 민주적인 정보 유통에 대한 요구로 발전했다. 민주적인 정보 유통이란 특정한 소수에게 정보가 독점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최소화하는 지속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가?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먼저,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에 의한 지식 독점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한다. 예나 지금이나 지식은 권력을 의미한다. 정치에서든, 경제에서든, 과학기술의 영역에서든, 지식을 가진 자는 그것을 활용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지식을 갖지 못한 자는 그런 과정에서 소외된다. 지식을 생산한 사람이나 집단에 그 공헌을 인정하는 일은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생산된 지식을 오로지 어떤 사람이나 특정 집단만이 독점하도록 할 이유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지식은 공유할 때 그 가치가 증대된다. 지식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더라도 고갈되거나 줄어들지 않는 자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말하자면, 열 사람이 지식을 공유하면 그 지식의 효용은 열 배가 되는 셈이다. 나아가 지식을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가진 여러 사람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수용하고 그에 관하여 토론할 때 더 풍부한 내용을 가진 지식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은 지식의 더 넓고 풍부한 활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 또 한 가지 이유다. 자연과학적 지식이나 의학적 발견을 생각해보라. 만일 그런 지식이 그것을 찾아낸 특정인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인류는 해당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가능했던 수많은 과학적 성취나 지식 창출의 성과를 축적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지식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장치로는 우선 각급 학교가 있지만, 그런 학교만이 지식 공유의 장소는 아니다.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문화센터, 최근 풀뿌리 문화운동의 새로운 중심으로 발달움하기 시작한 동네 서점, 지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행사 등이 다 그런 공유의 장소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이런 지식 공유의 마당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려고 애쓰는 까닭은 지식의 공유가 한 사회를 더 지혜롭고 풍요롭게 만들고 나아가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과 안정적 유지에 중요한 토양을 이루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사회』 활용

■ 문항 2 [40점]

[논제] 아래에 제시된 <자료> 중 적절한 것을 활용하여 <다음> 1)~3)의 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700±100자, 4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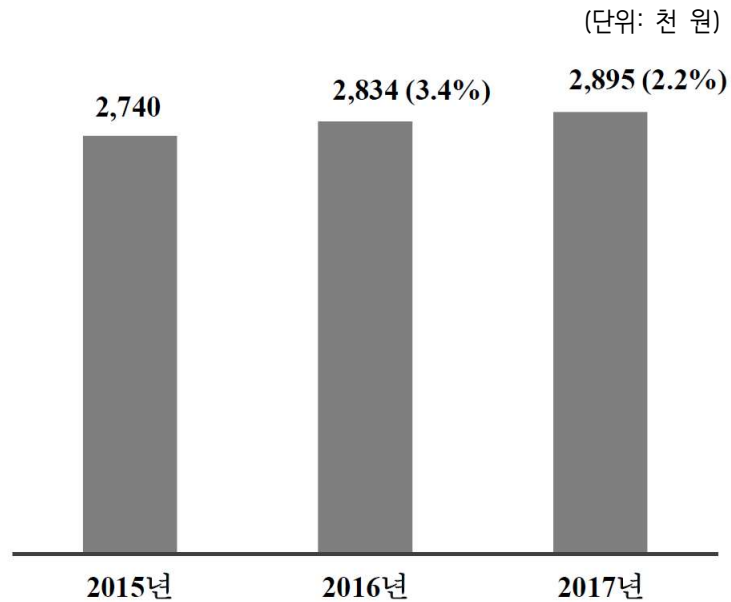
— < 다 음 > —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여러 가지 노동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임금과 관련된 문제로 저임금과 임금 격차 심화 등이 있다. 임금 수준은 노동생산성이나 위험 부담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과 관계없이 학력이나 성별 등의 이유로 부당한 임금 차별이 발생하기도 한다.

- 1) 우리나라 노동자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10점)
- 2) 우리나라 노동자의 월 평균 노동 시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0점)
- 3) 우리나라 노동자의 성별 월 평균 임금 격차가 경력기간이 짧은 집단에 비해 긴 집단에서 커지는 현상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20점)

고등학교 『사회 . 문화』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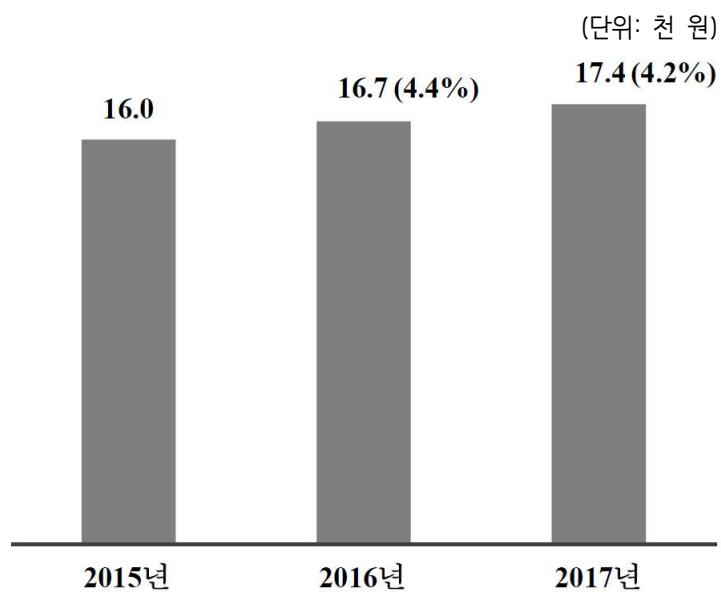
<자료 1> 우리나라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 대비 변화율임.

출처: 통계청

<자료 2> 우리나라 노동자의 시간 당 평균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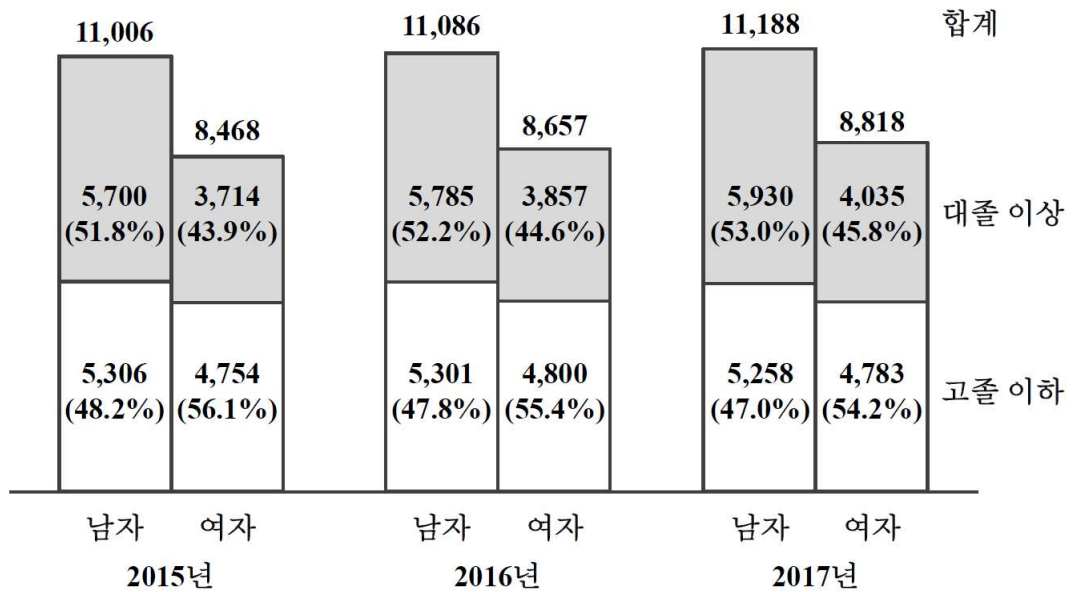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 대비 변화율임.

출처: 통계청

<자료 3> 우리나라 노동자의 성별 · 학력별 인구 구성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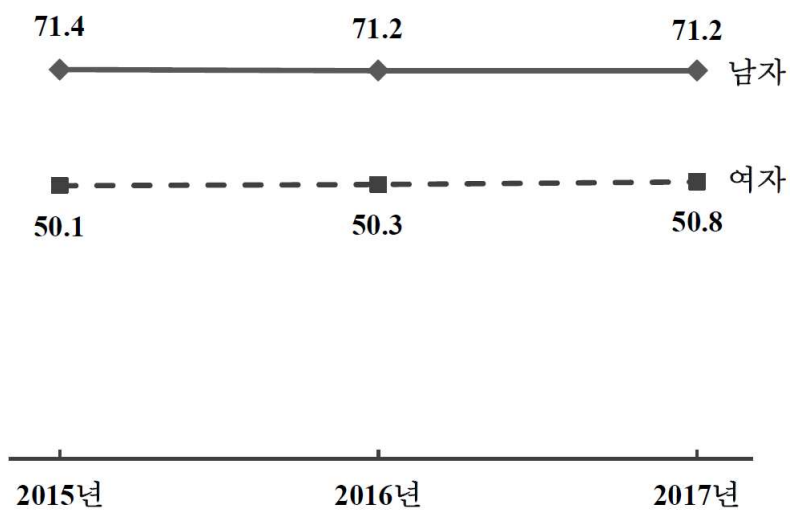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 성별 내의 학력별 비중임.

출처: 통계청

<자료 4> 우리나라의 고용률

(단위: %)



주: 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

출처: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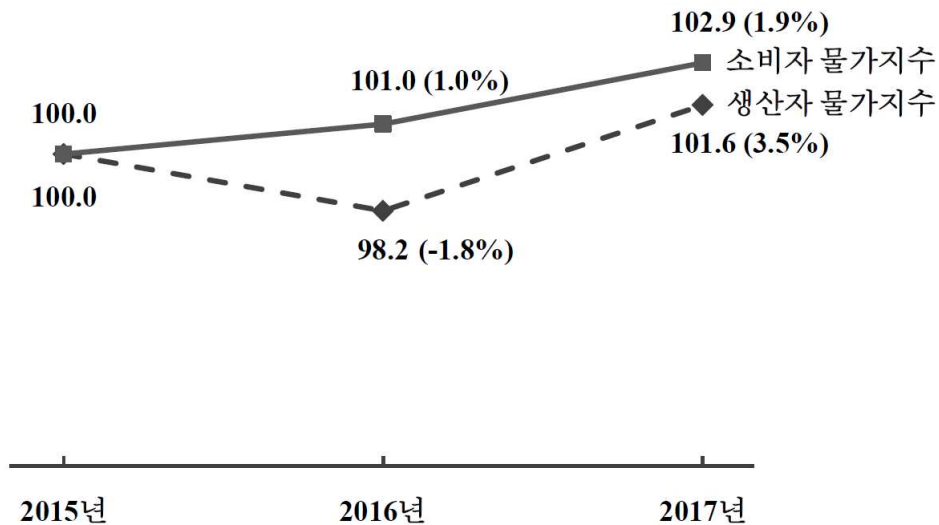
<자료 5> 우리나라 노동자의 성별 · 경력기간별 월 평균 임금

(단위: 천 원)

경력기간	2015년			2016년			2017년		
	남자	여자	차이	남자	여자	차이	남자	여자	차이
10년 미만	3,003	2,075	928	3,086	2,134	952	3,174	2,225	949
10년 이상	5,004	3,444	1,560	5,058	3,566	1,492	5,164	3,611	1,553

출처: 통계청

<자료 6> 우리나라의 물가지수



주 1) 물가지수는 2015년(기준연도)을 100으로 하여 계산한 수치임.

2)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 대비 변화율임.

출처: 통계청

논술고사 (인문계열)

논술고사 (인문계열)

																		40	
																			80
																			120
																			160
																			200
																			240
																			280
																			320
																			360
																			400
																			440
																			480
																			520
																			560
																			600

